



Media only: Megan Krefling 202-633-0271; kreflingm@si.edu
Sai Muddasani 202-633-0408; muddasanis@si.edu

Media website: <http://newsdesk.si.edu>; <http://www.freersackler.si.edu/press>

불상의 숨겨진 면모를 보여주는 스미스소니언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 전시 한국의 불상과 복장물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Freer and Sackler Galleries)은 자비의 상징이자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목조관음보살상(木造觀音菩薩像) 한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한국의 불상(Sacred Dedication: A Korean Buddhist Masterpiece)”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 기간은 2019년 9월 21일부터 2020년 3월 22일까지이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엄선한 13세기 고려시대 관음보살상과 불상의 내부에서 발견된 씨앗, 보석 그리고 경전과 같은 복장물(腹藏物)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이 전시는 불상 내부에 복장물을 납입하는 의식을 통해 상에 신성(神性)을 부여하는 한국의 불교 전통에 대해 살펴본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최근 연구 성과를 통해 보관을 쓴 관음보살상과 그 안에서 발견된 복장물,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불상 봉안 의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개한다. X-ray 사진, 3D 스캔, 재질 분석과 조사 연구를 통해 이 불상은 한국의 유희좌(遊戲坐) 목조관음보살상으로는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사례임이 밝혀졌다. 한쪽 다리는 올리고 다른 한쪽 다리는 아래로 늘어뜨린 보살상의 자세는 관음보살이 보타락가산(補陀落迦山)에서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바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이자 중국 고대미술 큐레이터인 키스 윌슨(Keith Wilson)은 “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조각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사례가 드문 편인데 이 목조관음보살상은 금속제 보관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살상 안에서 발견된 복장물이 두 차례에 걸쳐 납입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관람객들에게는 박물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복장물을 볼 수 있는 전시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살상은 동일한 존상을 표현한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와 나란히 선보인다. 이 그림은 프리어 미술관의 소장품으로 관음보살상과는 제작 시기가 약 100년도 채 차이가 나지 않으며 고려시대 불교 조각과 회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가 될 것이다.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은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전시와 동일한 제목의 학술심포지엄을 2020년 2월 20일과 21일 양일 간 개최한다. 한국과 미국의 학자 10명을 초청하여 고려시대 불교 조각과 한국의 불복장 전통

SI-359-2019

SMITHSONIAN INSTITUTION MRC 707 PO Box 37012 Washington DC 20013-7012 Telephone 202.633.4880 Fax 202.786.2317

이라는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이 심포지엄을 통해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 속에서 한국의 불상 제작과 불복장 의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포지엄과 더불어 박물관에서 새롭게 발간하는 <고려불화 자세히 보기(Goryeo Buddhist Painting: A Closer Look)>라는 제목의 온라인 도록 또한 고려시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60여 점의 고려불화가 현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점이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미국에는 8개의 기관이 총 16점의 고려불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은 이 소장품들을 조사하고 디지털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9월 21일자로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간될 예정인 이 온라인 도록은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불상”전은 미국 스미스소니언의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이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엘렌 베이야드 위든 파운데이션(Ellen Bayard Weedon Foundation)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 소개

미국과 아시아가 만나는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Freer and Sackler Galleries)은 스미스소니언 산하의 국립 아시아미술 박물관입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자리한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은 뛰어난 미술품을 보존, 전시, 연구하고 문화와 아이덴티티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질문도 다루고 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은 신석기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약 4만여 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시아미술 컬렉션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장품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고대 근동과 이슬람 문화권의 뛰어난 미술품과 더불어 공작의 방(Peacock Room)을 비롯한 중요 미국 미술 컬렉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은 다채로운 소장품과 학문 연구에 기반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즐기고, 인식을 전환하며,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은 뛰어난 미술품과 심도 있는 연구조사,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여러분을 아시아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깊은 사색과 문화의 향유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로질러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리어 새클러 미술관만의 장점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